

Environmental

2024 ESG Trend 10

제공일시 2024 01 1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Social

Governance

2024 ESG Trend 10

제공일시 2024 01 1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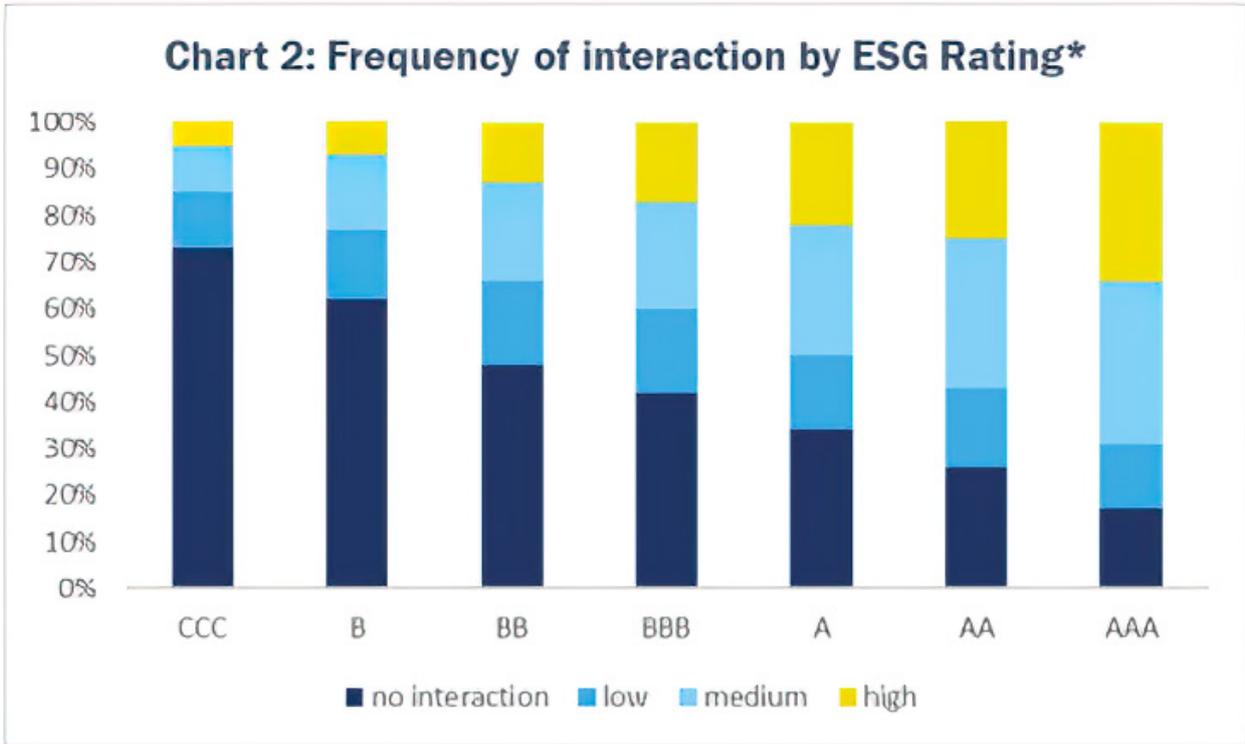
5. ESG평가

“ESG 평가 수요 늘어나면서, 평가기관 투명성 강화 및 이해관계 상충 방지 위한 글로벌 규제도 늘어...정량 평가 외 정성 평가도 강화”

글로벌 환경컨설팅 업체 ERM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관투자자들의 ESG평가서비스 사용률은 12%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사용률이 43%로 크게 늘었다. 때문에 기업 ESG담당자들에게 평가대응은 중요업무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국내에서도 한국ESG기준원(KCGS), CDP 등의 ESG 평가체계에 대응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평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ERM의 ‘ESG평가기관에 대한 평가 (Rate the Raters)’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응답자 80%가 ESG평가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중간’ 혹은 ‘낮음’이라고 답했다.

“ESG 평가기관의 투명성 강화 위한 글로벌 규제 움직임”



MSCI와의 직접적 교류빈도에 따른 ESG평가등급 차이/BTCPP

ESG평가에 대한 이해관계상충 문제도 지적받고 있다. MSCI, S&P글로벌(DJSI) 등의 주요 ESG 평가기관들이 ESG 지수상품을 판매하거나 자문,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평가기관의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영국의 지역정부 연금연합, 보더 투 코스트 펜션 파트너십(Boarder to Coast Pension Partnership)의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MSCI와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격차가 많게는 10배나 된다. 또한 MSCI와의 직접적 교류빈도는 MSCI ESG등급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RM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ESG 평가점수 향상을 목적으로 평가기관의 컨설팅 서비스 혹은 디지털 솔루션 구매를 위해 연간 22만달러(2억 9000만원)에서 48만달러(6억 3400만원)가량의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 상충 문제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자 ESG 평가기관에 대한 글로벌 규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일례로 작년 6월, EU는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ESG 평가기관은 이해관계 상충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ESG 평가 및 벤치마크 서비스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ESG평가체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평가기관은 유럽증권시장당국(ESMA)의 승인과 감독을 받게 된다.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ESG 평가기관 가이드선스' 마련

내부통제체제 구축,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의 관리 등
평가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



ESG 평가의
신뢰성·투명성·
공정성 제고

+



국내 평가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9.1일부터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 예정

국내의 경우, 정부가 주요 평가기관 3사와 협력해 ESG 평가 가이드선스를 발간했다/ 기재부

국내에서는 작년 5월 금융위원회가 ‘ESG평가기관 가이드선스’를 제정했다. EU와 달리, 해당 가이드선스는 자율 규제에 해당된다.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 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가이드선스 제정에 참여했다. 평가 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가이드선스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원천 데이터의 수집 및 비공개 정보의 관리 ▲평가체계의 공개 ▲이해 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이 금융관리당국의 주관으로 ESG 평가기관에 대한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다. 임페리얼 대학교 경영대 교수, 마이클 윌킨스(Michael Wilkins)는 “ESG 평가체계에 대한 표준화와 규제 노력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ESG 평가 대응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거나, 평가 체계에 대한 접근성 약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ESG 평가 산업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 규제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ESG평가 규제 트렌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ESG 평가업계, 평가 방식 간소화 및 정성적 평가 통해 문제점 보완 노력”

ESG 평가 업계 또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불만 사항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MSCI의 ESG 펀드 평가 서비스는 기계적 정량 평가 체계로 인해 특정 자산운용사의 ESG 펀드가 편향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는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에 작년 5월, MSCI측은 클라이언트들의 피드백을 수렴해 각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폐기하고, 평가방식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최상위 등급인 ‘AA’와 ‘AAA’에 대한 기준치를 높여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 이에 3만1000여여 개의 ESG 펀드가 평가 등급을 강등당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림) 대기업의 ESG 평가등급과 MSCI 평가등급이 더 상관관계가 높다./FT 캡처

또한 작년 8월, S&P500은 자사의 기업신용평가 서비스에서 ESG 점수를 제외하고, 정성적 분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S&P500은 기업 ESG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일관성과 명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분석적 서술의 형태로 ESG를 평가하는 것이 ESG신용평가의 투명성과 디테일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모닝스타 또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작년 8월 모닝스타는 17개의 신용 등급에서 숫자는 지양하고 기후 위험, 인권 및 부패 등 최대 17개 ESG 요소를 적용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량적 점수평가와 정성적 분석 통합한 ESG평가 체계 대세 될 것… ESG평가체계 질적 성장 전망”

ESG rating	An opinion , a score, or a combination of both, regarding an entity, a financial instrument, a financial product, or an undertaking's ESG profile or characteristics or exposure to ESG risks or the impact on people, society, and the environment, that are based on an established methodology and defined ranking system of rating categories and that are provided to third parties, irrespective of whether such ESG rating is explicitly labelled as "rating" or "ESG score"
Opinion	An assessment using a rules-based methodology and defined ranking system of rating categories, involving directly a rating analyst in the rating process or systems process
Rating analyst	A person who performs analytical functions to issue ESG ratings
ESG score	A measure derived from data, using a rules-based methodology, and based only on a pre-established statistical or algorithmic system or model, without any additional substantial analytical input from an analyst

(그림)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가 공개한 ESG평가 및 점수에 대한 정의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가 내린 ‘ESG 평가’의 정의에 따르면, ESG 평가는 정량적 점수, 정성적 의견 혹은 둘을 혼합한 분석 시스템이다. 여기에서 정성적 의견은 평가 분석가(Rating Analyst)의 직접적인 평가를 포함한다. 하지만, 현재 ESG평가체계를 살펴보면, 정량적 점수 중심의 평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성적 의견이 매우 주관적이며, 일관성 있는 평가를 내리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량적 점수의 기계적 평가 방식이 산업 및 기업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평가 등급의 실제적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때문에 주요 금융기관들은 정량적 ESG 평가 데이터와 뉴스기사, 애널리스트 분석 등의 정성적 자료를 통합해 ESG 리스크를 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블랙록과 스트리트는 인하우스 ESG 리스크 분석팀을 구성해, 이들은 다양한 외부평가기관의 정량적 ESG데이터, 기업공시자료, 미디어 사건사고 자료를 통합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ESG리스크를 독자적으로 도출한다. 아몬디 또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18곳의 ESG평가기관 데이터를 활용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애널리스트가 정성적 분석을 통해 ESG의 다면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 편입 여부를 판단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와 평가 방식에 대한 개편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ESG 투자 및 평가 시장이 성숙해지고, 공시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차원의 기준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월스트리트 저널- ESG평가 분석기사

<https://www.wsj.com/finance/investing/esg-ratings-f569f60e>

S&P500- ESG정성평가 인터뷰 기사

<https://www.environmental-finance.com/content/awards/sustainable-investment-awards-2022/corporate-statements/investors-turn-to-qualitative-esg-evaluations.html>

KCGS리포트 13권 12호- 국내외 ESG평가기관 규제동향

https://www.cgs.or.kr/publish/report_view.jsp?tn=169&pp=3&spyear=&skey=&svalue=

FT- ESG평가 이해관계상충 문제 분석기사

<https://www.ft.com/content/fbe10867-fea1-4887-b404-9f9e301e102e>

FT- ESG평가 전망 기사

<https://www.ft.com/content/9349f55c-86f5-419a-ab68-e2b887885790>

임팩트온 참조기사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6199>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6699>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7059>